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 이방나라들의 징벌

(아모스 1장 3절 - 2장 3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 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 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 는 안타까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섯 나라 곧 수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와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들에게 재 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 1.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는 죄의 수를 말하기보다 죄가 많아서 점점 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 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 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롬 2:12). 율법이 있는 유대 민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 백성들은 율법이 없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자연 계시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 (1) 다메섹의 잔인한 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3절).

다메섹은 수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유대 민족을 철 타작기로 곡식을 때리듯 이 탄압 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이하에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예후 시대에 범한 죄악이 본문에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할 때 하나님 은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 (2) 가사의 인신매매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6절).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 원수의 나라인 에 돔에 넘기는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 (3) 두로의 계약 파기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9절).

두로는 베니게의 별명입니다.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형제 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이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수리아 사람들에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 (4) 에돔의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의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핍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여섯 나라들이 가지고 있 는 공통점은 인권을 유린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물고 찢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 다. 오늘 실용주의사상(pragmatism)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내게 유익하면 어제 까지의 형제도 원수로 삼고, 필요하면 원수와도 악 수를 합니다.

독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암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방 나라들만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이스라엘도 하나님 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이 넘도록 들 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까 두 려워하며 빨리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조롱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대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 2.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여섯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인권을 유린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물고 찢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실용주의사상(pragmatism)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내게 유 익하면 어제까지의 형제도 원수로 삼고, 필요하면 원수와도 악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은 자기 유익만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에는 이방나라의 서너 가지 죄와 같은 잔인한 죄, 형 제를 무시하고 이용한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바로 두로이고 블레셋이며,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에 만연된 이 서너 가지 죄를 간절히 회개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 번역 이렇게 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 위원회 위원장

제87회 총회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재 번역하기로 결의하고 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1일 전문위원 첫모임을 가진 후 지금까지 각각 여섯 차례의 모임을 갖고 연구를 하였다.

우선, 주기도문 재 번역을 위해 나채운 · 박수암 · 성종현 · 최기준 · 이중윤이 전문위원이 되어 다음과 같은 번역 원칙을 세웠다.

첫째, 주기도문의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이 있으나 예배용으로 마태복음의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마태복음판의 주기도문을 번역기로 한다.

둘째, 연합성서공회(UBS)가 출판한 헬라어(3판) 성경의 난하주에 있는 송영도 본문으로 간주하고 번역한다.

셋째,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되 기도문이므로 현대 문어체로 정중한 표현을 하기로 했다.

전문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 아멘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호격이므로 아버지여 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아버지와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를 붙이지 않기로 했다.

둘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는 당신의(σου)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해야 원문에 맞는 번역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경우 우리말의 정서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인칭 대명사를 명사로 대체하여 '아버지의'로 번역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던 주기도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으나 원문에서 '당신의(σου)'가 세 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강조 용법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반복되어 번거로운 느낌이 든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가 강조됨으로 기도문의 정신이 더 뚜렷해진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하시며' 즉 수동태로 번역이 가능하나 짧은 기도문에서 더 힘 있는 표현은 아무래도 능동태의 표현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로 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는 임하게 하고 보다 현대적 표현인 오게 하시며로 번역했다. 나라이는 옛날 문법이고로 오늘 사용하는 나라가로 바꾼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현재 사용하는 오늘날은 여러 날 또는 한 시대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으므로 오늘이라 함이 옳다.

다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는 순서가 바뀌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이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이들로 남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다. 용서와 사해 주는 것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용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여섯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에서 시험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았으나 넓은 의미에 시험을 쓰되 '빠지지 않게 하시고'로 하면 시험의 성격이 분명해 지므로 그렇게 번역했다.

일곱째, '악에서 구하소서'는 악 또는 악한 자(사탄)로도 번역할 수 있으나 역시 넓은 의미를 가진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했다.

여덟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는 지금까지의 권세보다는 권능이 원어에 더 적합한 단어로 판단하고 송령이므로 청원기도와 달리 정중하게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옵니다'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대개'는 의미상 혼란이 많고 운을 상 번역하지 않기로 했다.

\* \* \*

그리고 사도신경 재 번역을 위해 이형기 · 이수영 · 현요한 · 최기준 · 이중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번역원칙을 네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750년의 공인된 원문(Forma Recepta)을 기본으로 하여 번역한다.

둘째, 원문에 충실하되 항목별 개별성을 존중한다.

셋째, 신학적 검증도 함께 한다.

넷째, 오늘에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따른다로 했다.

전문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제시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신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고 신앙고백문이다. 따라서 고백자 즉 주어가 앞에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여 '나는 ~ 믿습니다.'의 구조를 갖게 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이라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천지창조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되기 쉽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더 좋다. 전능하신과 아버지가 나란히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을 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면 삼위 가운데 성부를 지칭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로 부르는 의미가 더 크다. 사도신경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차례로 고백한다.

현행 사도신경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낸다. 헬라어 '모노게네스'는 숫자상 하나밖에 없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과 유일한, 독특한 관계에 계신 분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는 많은 오해를 풀 수 있다. 우선 '이'를 '그'로 바꾸었다. '이'는 이 사람, 이 사실의 뜻이 있으나 '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리키는 것이다. '성령으로' 할 경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지 성령으로서 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 경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하셨다는 말도 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해서도 안 된다. 나시고는 예게와 합치면 태어난다가 아니라 (예를)넣는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현행대로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를 넣어주셨다는 해피망측한 말이 된다.

'장사되신지'는 잉태하사를 '잉태되시어'로 고친 것처럼 장사한지도 장사되신지도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서 주어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내려 가셨다가'라는 문구는 공인된 원문(Forma Recepta)에는 있으나 다른 고대판본에는 거의 빠져있고 신학적 논쟁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새 번역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에서 원문에 있는 아버지가 번역되어 들어갔다.

'거기로부터'는 현행 지리로서를 바르게 현대어로 잡은 것이다.

'거룩한 공교회' 즉 보편 교회를 말한다.

'성도의 교제와'는 코이노니아의 교제, 사귄, 친교, 참여와 같은 여러 가지 뜻 중 교제라는 말이 고어인 교통보다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했다.

'죄를 사함 받는 것과'는 성도에 관한 항목이다. 죄 사함에 관한 항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관한 항목은 첫째 항목이다. 여기서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므로 죄를 사함 받는 것과로 한다.

'영생을 믿습니다'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를 재번역한 것이다. 끝없는 시간, 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생을 믿습니다로 했다.

번역은 재창작이라 한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은 번역자의 의도나 경향성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마무리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은혜가 되는 번역이 되어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청교도 신앙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오정수 장로**  
(청교도 신앙세미나준비위원장)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 언더우드·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어둠던 이 땅에 빛이 비추어 졌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 100년 전 1903년 복음을 전해준 미국 땅 하와이에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간 한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4천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미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 이민선교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갱신연구원(KIMCHI:원장 이종운 목사)은 미국 이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명돈의 목사)와 공동으로 오는 3월 12일(수)부터 3월 15일(토)까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인 목회자 70분을 초청하여 '청교도 신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서울교회 설립 초기부터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외국 목회자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하여 효율적 복음화 전략에 관한 세미나로 목회자 재훈련 프

그램인 '김치 신학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1990년 동구권 7개국 지도자 30명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60여개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 700여명이 우리 교회의 '김치 신학 세미나'를 거쳐 갔으며 작년에는 아시아 지역 20개국 120여명의 교계지도자들이 참가한 제5차 아시아 로잔대회를 KIMCHI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매년 개최된 김치 신학 세미나의 제반 경비를 성도님들의 특별헌금으로 충당하여 진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청교도 신앙세미나'를 통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교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신행일치의 삶으로 미국 땅에 경건과 헌신을 심는 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물질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청교도 신앙세미나를 통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이루고 사랑의 빛을 복음으로 갚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새가족 환영의 시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강원진 강유진 강현우 권지영 권태근 김경남 김미경 김순례 김순옥 김영숙 김영숙 김용주 김현서 김형금 김용택 나광연 나문예 나분남 나한성 남효주 박경록 박경재 박도순 박영화 박우성 박진희 백도환 백병철 백성훈 백지연 백예진 백효족 서남숙 서정에 서춘의 서영미 손경란 신금의 신기조 신도섭 신문식 신민규신봉하 신지영 신지에 신태선 안성환 염정태 옥문수유영수 윤광중 이민진 이순익 이아네스 이에리자 이영예 이윤영 이재호 이정우 이호자 전숙향 전영희 정선화 조건우 조영경 조인숙 주효순 최미경 최승철 최우정 최원매 최윤정 최지이 한성진 한승열 한영숙 한정연 홍경순 황연숙 (이상 79명)

### 2003년 제1기 장학생

손재영 이조은 박준희 홍유미 천광훈 황성배 최원애 인요셉 이인영 임관자 김성국 송지훈 최선에 정희예 한성현 홍비치라

## 육사 졸업감사예배

우리교회는 3월5일(수) 오후7시에 육사교회에서 기특생도 120명의 졸업 감사예배를 주관한다.  
참여할 성도들은 5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된다.

려 왔어요.

우리가 한마음으로 성막에 대해 공부하는 게임을 하니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뒤에 있는 친구는 너무 울었어요. 저도 잡자기 울고 싶어졌어요.

다음날은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 창단식을 하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찬양하고 모두 함께 사진 찍을 때 정말 재미있었어요. 빨리 다음 성경학교가 빨리 왔으면 해요.~ 여러분도 꼭 다음 성경학교에 오시길 바라겠어요.

### 김성은(유년부3학년)

할렐 루아!

즐거운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나는 기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교회로 갔다. 교회에 도착하니 벌써 찬송소리가 너무도 재미있고 신나게 들렸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말씀과 공과공부와 재미나는 게임들은 나에게 너무도 신나고 즐거운 성경학교였다. 교회에서 처음 잠을 자니 잠은 오지 않고,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1박2일이라는 신나는 겨울성경학교! 나에게 정말 영원히 기억에 남을 성경학교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 백마리아 (초등부 6학년)

마침내 기다리던 1박2일간의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기다림과 설레임에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겨울 성경학교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이 짧은 이틀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또 이 이틀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기대감과 더불어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해 보았다.

이틀간의 성경학교 동안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은 바로 세족식과 성막여행이었다. 기도가 끝난 후 어머니께서 손수 내 발을 닦아 주셨다. 늘 보던 엄마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웬지 모르게 좀 씩스럽고 떨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해보았다. 발을 닦아 주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손수 발을 닦아 주시는 이 같은 엄마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은혜스러움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세족식과는 달리 성막여행에서는 성경으로 배웠던 부분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과 일정들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성경학교 생활을 한 것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다.

### 최승우(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었고 성막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옛날 성막에서는 번제단에 양이나 소를 제물로 태워서 예배를 드렸



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 더욱이 나는 현재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깊이 반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막임을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의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가지 면류관을 쓰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갖은 모욕을 다 받으시며 걸어가시는 고난의 체험을 우리들이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체험을 통해 나도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 자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도 또 다른 체험이었다.

### 이현주(유년부3학년)

성경학교 중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찬양할 때.. 춤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 꼭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에 친구도 많이 데



# 복음의 젖줄인 땅을 밟읍시다



**김상신 장로(캄보디아선교단 단장)**

캄보디아는 불교권의 나라이어서 기독교는 그 영향력이 미약하므로 선교의 황무지임과 동시에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던지 복음전파의 영역이고 우리의 활동무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캄보디아에 우리의 눈과 입을 동원하고 몸과 마음을 쏟고자 합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의 연속상영이고 중단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염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나라말로 전해야 하는 가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첫 번째 관문부터 장애물이고 기독교의 불모지인 그곳에 선교전략의 최선책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낯설고 물 설은 타국에 가서 짧은 10일 동안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도 의문점입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선교팀으로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이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돌아올 수 있는지가 큰 난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

로 하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곳은 악의 꽃이 피었고 악을 먹고 마시는 나라였습니다. 악 때문에 피가 흘렀고 무고한 백성이 죽어간 길림필드였습니다. 인구의 45%가 어린이만 남은 아픔의 나라입니다. 거기서는 한 번도 사랑이나 용서, 진리나 정의라는 단어가 쓰여진 경우가 드물었으며 죽고 죽이는 우리에겐 정말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곳을 황무지로 내버려두거나 무관심의 영역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국교회의 책임감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에도 선교지역으로 캄보디아는 제 일순위로 지정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곳을 향하여 발길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믿음과 담력이 있고 헌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보다 많이 기도해 보니까 그곳을 향한 이쁨과 눈물, 애정과 희생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

이면 좋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밤마다 들리려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진 자였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부름에 응답하여 '나를 선교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했으면 합니다. 선교는 많은 것의 희생이고 포기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것을 써야하고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가장 큰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그 대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이 보장된 사역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으나 아무나 가지 못하는 선교지역에 나는 갈 수 있다고 지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복음의 황무지이며 황금어장인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바울이 되고 아볼로가 되어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선교팀에 초대합니다.



▶수도 프놈펜의 전경

삼일운동 기념주일을 맞아 당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처럼 민족의 완전자주독립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삼일운동 때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삼일운동 84주년을 기념하여

### 이민열 전도사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9곳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막을 새롭게 연 민족적인 거사였다.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한 이 운동은 세계 약소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제 1차 대전 후 세계사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삼일운동 84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우리 민족은 삼일운동이 남긴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50년 이상 분단시대를 살면서 아직도 민족통일의 전망을 확실하게 갖지 못한 한민족은 삼일운동을 일으켰던 조상들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역사적 교훈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삼일운동은 첫째 일제로부터 민족이 독립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이래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기뻐 복종한다고 선전하는 한편 한국인을 나라를 잃고서도 통분하지 않는 의식 없는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삼일운동은 일제의 이 같은 선전이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된 것이었음을 증명하였다. 삼일운동은 강점 이래 한민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일제의 폭정을 물리치고 독립을 찾으려는 민족독립운동이었다.

둘째 이 운동은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일제의 한국강점 후 더러는 일제에 빌붙어서 민족을 배반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일제가 내린 작위를 받는가 하면 더러는 경찰이나 헌병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기적 같은 것이었다. 심지어 경찰 앞잡이로 있던 조선인들마저 삼일운동 계획을 알았지만 이를 방해하지 않고 거사를 일으키도록 협조하였다. 그리고 신앙과 종교, 남녀와 계급, 직업을 넘어서서 온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셋째 이 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독립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뛰어오르게 되었다. 그 전에는 독립운동의 흐름이 이념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이 때부터 새롭게 편성되어 상해임시정부를 통하여 민주공화국을 이 땅에 설립하는 한편, 광복군을 조직해 일제에 정부차원의 투쟁을 벌이게 되었고,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무장독립운동을 벌여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미주와 다른 여러 곳에서는 외교적인 차원의 독립운동도 벌였다.

특히 이 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민족대표 33인중 16인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신경망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 또한 지방의 독립운동 중 약 20% 이상을 기독교인들이 지도하였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인구의 1.5% 정도에 불과했으나 기독교인에 10배가 넘는 신자를 확보했던 천도교는 독립운동에서는 기독교보다 열세였다.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3월4일(화) 비전2020 출정식, 5일(수) 육사세례식, 6일(목) 대치지역 교회연합회 모임에서 설교 한다.
- 경경미 성도(6교구)는 단국대학교 학부 수석졸업으로 총장상 수상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청교도 신앙 세미나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